

비즈 패트롤 | KT 통신구 화재 불똥 튄 5G

“통신재난 대비 필요”...5G ‘초연결 사회’ 우려 ↑

이통 3사, 5G 관련 행사 취소·연기
과기정통부 장관, 3사 노력 촉구
5G 자율주행 서비스 등 대비책 절실

통신, 유통 등 사회 전반의 서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KT 통신구 화재 불똥이 5G로 옮겨붙었다. 이동통신사들은 12월1일 첫 전파 송출을 앞두고 계획했던 5G 관련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5G로 기대했던 초연결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들의 5G 관련 미디어 간담회가 모두 취소 또는 연기됐다. KT는 통신장애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간담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협력해 난관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6일 통신 3사 대표들과 긴급회의를 가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KT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KT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기준, 화재로 불똥뚫던 통신망은 무선은 96%, 인터넷과 IPTV는 99%, 유선전화는

92%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규모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D등급 통신구에서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서울의 4분의1가량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KT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전국 통신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가올 5G 시대에 대한 우려다. 5G는 빠른 속도를 기본으로 하는 초저지연의 특성으로 다양한 사물을 연결한다. 그만큼 통신 의존도가

높아진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도 5G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망이중화’ 등의 대응책 없이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수준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박선숙 의원은 “5G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현재 장애가 계속되는 카드결제기 이용 고객을 위해 무선 LTE 라우터 1500대 투입하고, 소상공인지원 센터를 구축해 직원 330명을 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7일

코스피지수	2099.42	▲	+16.40
코스닥지수	700.67	▲	+5.31
日 닛케이 지수	2만1952.40	▲	+140.40
中 상하이 종합	2574.68	▼	-1.1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1		0
환율 (원·달러)	1129.5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4340.74	▼	-115.88



“하늘에서 선물 배달 온 산타클로스”
AK플라자 분당점이 12월26일까지 1층 피아피360 광장 시계탑에 공중부양 산타클로스를 선보인다. 가로 2.5m, 세로 3.3m, 높이 5m 크기로 하늘에서 선물 배달 온 대형 산타클로스를 연출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AK플라자

롯데, 손해보험·카드사 매각...금융업서 손 댄다

지주사 전환, 금융계열 지분 처분
성장+임직원 존중할 인수자 물색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업에서 손을 댄다. 롯데는 27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 맞춰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외부 매각과 함께 롯데물산 등 내부 계열사와의 지분 교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외부 매각으로 방향을 결정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2002년 동양카드를 인수한 지 16년 만에, 롯데손해보험은 2008년 대한화재를 사들인 지 10년 만에 다시 파는



롯데카드 사옥. 뉴스1

셈이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주관사로 나서 매각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한 다.

롯데 측은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최적의 인수자를 신중하게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롯데와 전략적 방향을 같이 하면서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인수자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카카오, DB손해보험과 챗봇 개발

카카오는 카카오톡 챗봇 개발을 위해 DB손해보험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단계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챗봇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상품 안내나 자주 묻는 질문 등 간단한 응대부터 DB손해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까지 챗봇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파트너들이 챗봇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 플랫폼 ‘카카오이아 오픈빌더’의 비공개 테스트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공개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사원이 멘토...대명그룹, ‘리버스 멘토링’ 도입

M세대 직원과 경영진 임원이 함께

대명그룹은 2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리버스 멘토링 동상일몽’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과 김정훈 대명홀딩스 사장, 최주영 대명호텔리조트 대표이사, 문병홍 대명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M세대 직원 약 100여명이 직접 멘토(경영진 및 임원)를 선정했다.

‘리버스 멘토링 동상일몽’은 M세대 직원이 그룹 경영진, 임원의 멘토가 돼 함께 밀레니얼 콘텐츠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는 트렌드와 이슈, 유행 소재, SNS, IT 정보 등을 코칭하고,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대명그룹은 임직원 중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 비

율이 전체 임직원의 50%를 차지한다. 이에 직원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만족하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을 기획했다. 또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는 M세대에게 어떻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내년 3월15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고, 이 기간 경영진 또는 임원 1명(멘토)과 직원 2명(멘토)이 한 조가 되어 ‘주 1회 핫 플레이스 벤치마킹’, ‘월 1회 M세대를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 공유’ 등의 시간을 갖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LF, ‘라움 이스트’ 오픈



LF가 27일 서울 신사동에 라이프스타일 쇼펍문화공간 ‘라움 이스트’(사진)를 오픈했다. LF의 패션, 뷰티, 푸드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종합한 멀티 콘텐츠 스토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1700㎡의 규모로 3개 층을 연결하는 아치형 창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정욱 기자



LF가 27일 서울 신사동에 라이프스타일 쇼펍문화공간 ‘라움 이스트’(사진)를 오픈했다. LF의 패션, 뷰티, 푸드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종합한 멀티 콘텐츠 스토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1700㎡의 규모로 3개 층을 연결하는 아치형 창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정욱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1:1 학습관리센터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기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가에 부적이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독학, 인강, 학원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있지만 빠르게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일 터다.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공인중개사 교육기관들은 저마다 저렴한 수강료 및 무료 혜택들을 나열해 많은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은 “공인중개사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으로 불합격 시 1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합격자 수야말로 가장 확실한 교육기관 선택 기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자격증 교육기관에서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는 합격 사례와 합격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는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격에 특화된 커리큘럼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수



2018년 11월 28일, 에듀윌 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기준은?

있다. 또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에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 외에도 학습 습관을 관리해주는 관리 프로그램도 있다.

에듀윌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받았다. 일례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업계 최대 규모의 1대1 학습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합격 이후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에듀윌은 자사 출신 합격자들을 모아 동문회를 결성하고, 인맥책을 제작하는 등 네트워크에 힘을 쏟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스도쿠문제

		9		5	2			
	5		7	6		8		
3				9				1
4	1			5			2	
		8	9		2	1		
	9			4			3	5
7				2				8
	2		4		1		9	
		1	8			6		

		3		2		8		
			1		6		9	2
	8			7				4
1					5		3	7
	7		6			9		1
8		3		2				9
	1				6		5	
5		8			1		7	
			5		2		3	

스도쿠정답

2	9	8	3	1	4	7	6	5
7	6	1	9	4	5	8	2	3
8	1	4	2	5	9	3	8	7
5	8	7	4	1	2	6	9	3
9	4	1	2	3	6	8	7	5
6	2	8	7	9	5	1	3	4
1	9	5	6	1	2	7	8	3
3	8	6	9	1	4	7	5	2
4	2	7	5	8	3	6	9	1
1	3	8	2	7	4	9	6	5
9	7	1	3	1	4	8	2	5
4	5	2	9	8	6	7	1	3
6	9	4	7	2	1	3	5	8
8	1	5	6	8	9	2	7	4
7	2	8	4	3	5	9	6	1
3	4	9	1	6	7	5	8	2
2	8	6	5	9	3	1	4	7
5	7	1	8	4	2	6	3	9